

이재명 “민주화에서 독재화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

“입법 권력 장악하면 민주주의 복구 불가능”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 자행” ‘한, 독재화 전환 국가’ 스웨덴 보고서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

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

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면기자

서동욱 전남도지사 “진정한 성평등 향해 전진하는 계기 되길”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전남여성대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최근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15회 전남여성대회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여성들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도민과 공유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 캠페인 전개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상을 향해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주 발언과 전남여성선언문 낭독, 성평등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116년 전 오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외침에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이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채용, 출산·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저임금 일자리 등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1.2%로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8만 8천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 여성을 위한 날이 되기 보다는 여성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며, 진정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시작 시정 발전 견인할 정책 제시 기대해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지난 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태)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된 연구단체는 총 3개로 ‘지방하천 활용 생태·문화 발굴 연구회’,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 ‘섬 활용 미래 관광자원 개발 연구회’이다.
‘지방하천 활용 생태·문화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는 여수시 소재 지방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알아보고 미래 도시를 위한 하천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다. 이에 따른 지역하천의 생태·문화 공간 활성화, 인접 도심 지역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명숙 대표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지방하천이 있다는 그 자체가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우리 시 하천을 적극 활용해 미래 생태·환경 도시에 대한 비전과 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필)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자 남해안남중권 중심도시인 여수에 건설 중인 11개 연륙연도교(일레브브릿지)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방안을 도출한다.
최정필 대표의원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회 운영을 통해 반드시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섬 활용 미래 관광자원 개발 연구회’(대표의원 고용진)는 섬이 가진 고유 자원을 활용해 미래관광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여수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섬 주민 소득증대 정책 개발에 나선다.
고용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는 지난해 365 섬 발전연구회를 통해 얻어낸 거점섬, 테마섬을 적극 활용하고 섬의 지리적·자연적·역사·문화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시를 빛낼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강현태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정 발전을 견인할 분야별 다양한 정책제시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연구단체 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의회에서는 수산 발전 연구회,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 연구소,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MICE 미래 발전 전략 정책연구회를 활발히 운영해 관련 분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